

즐모 있는 여름

2025년 우리들의 여름방학 글쓰기

김나현 김예서 노현지 박관별 범서함 송주은 여효주 오보람 이서현
장면우 장지수 전민번 정은서 조은주 최단비 최수지 최지윤 최진희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뜨거운 여름,
인천 부평여중 친구들의
끝이 없을 나의 쓸모에 관한 이야기

쓸모 있는 여름

김나현 김예서 노현지 박한별 범서함 송주은
여효주 오보람 이서현 장연우 장지수 전민선
정윤서 조윤주 최단비 최수지 최지윤 최진희

| 차례 |

1. 달항아리에게 / 김나현	6
2. 초록초록 나의 화분 / 김예서	8
3. 화병(10번친구)에게 / 노현지	10
4. 예쁜 꽃을 피운 버려진 화병 / 박한별	12
5. 내가 그린 화분 그림 / 범서함	14
6. 사랑하는 초록이에게 / 송주은	16
7. 꽃한테 / 여효주	18
8. 달항아리에게 / 오보람	20
9. 내 사랑스러운 반려식물에게 / 이서현	22
10. 할머니에게 / 장연우	24
11. 달 항아리에게 / 장지수	26
12. 술병에게 / 전민선	28
13. 화분들에게 / 정운서	30
14. 10번 엄마에게 / 조윤주	32
15. 내가 그린 화분 / 최단비	34
16. 토마토야 / 최수지	36
17. 나의 쓸모 / 최지윤	38
18. 내가 그린 화분 그림에게 / 최진희	40



달항아리에게

부평여중 2학년 김나현

안녕 달항아리아. 난 마지막으로 들어온 어항이야.

처음에 나에게 먼저 인사해줘서 고마웠어! 처음에는 낯선 곳이라 많이
무서웠는데 다들 착하고 내게 잘 해줘서 잘 적응할 수 있던 것 같아.

다른 애들의 과거사는 모두 들어봤는데 너의 이야기는 못 들었던 것
같네...

언젠가는 나와 다른 친구들에게도 얘기를 해줬으면 해! 너에게는 말해달
라고 했는데 정작 내 이야기는 말해주지 않았던 것 같네... 나는 원래 집에
서 물고기들을 키우는 어항이었거든... 근데 어느날 날 이 집에 데리고 온
여자아이가 어떤 고양이를 데리고 들어오더라.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애
써 무시했던 말이야? 근데, 어느날 일이 터져버렸어... 프랑스에서 떠밀
려 온 술병에게 들었는데 고양이들이 물고기를 좋아한다네...? 그래서 그
런가, 내 안에 있는 물고기를 그 고양이가 꺼내려다가 날 바닥으로 밀쳐
버렸지 뭐야... 그래도 다행히 난 단단해서 깨지지는 않았는데... 그
고양이가 놀랐는지 열린 창문으로 도망가 버렸어...

한번 보면 말해주라... 그 고양이는 주황색, 흰색, 검은색이 섞인 삼색
고양이였어. 너무 그런애들이 많다고...? 더 기억을 짜내볼게. 코는...
핑크색이고 눈은 녹색일거야. 그 고양이를 보면 얘기해줘! 한번 그림
으로도 남겨둘게. 그 고양이에게 물어볼 게 많아.

아, 그 일이 있고 나서 내 안에 있던 물고기들이 죽고... 나는 쓸 일이 없어서 버려지게 되었지... ㅎㅎ... 그래도 다행이었어! 그 할머니가 나를 깨끗하게 닦아주고 너희들 만나게 해 줬으니까! 나도 너희처럼, 그리고 너처럼 예쁜 식물을 피우고 싶네...

내 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나도 꼭 너처럼 예쁜 식물을 키우고 싶네^^



너에게 보내준 기항이 신



초록초록 나의 화분

부평여중 2학년 김예서

오늘은 햇별이 좀 뜨겁네
화분은 새싹을 위해 뜨거운 햇별도 견디고
차가운 물벼락도 견디고
꿈틀거리는 지렁이도 참아냅니다.



화병(10번친구)에게

부평여중 3학년 노현지

안녕 10번친구? 반가워. 나는 현지라고 해. 나는 지금 중3이야.

이제 곧 고 1이 되기도 하지...ㅎ

이번에 10번 친구, 그러니까 너에 대한 얘기를 읽어보았어...ㅎㅎ

처음에는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했어.

예전에는 아주 화려하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아왔었지.

그런데 상처가 생겨 하루아침에 전뭇대에 버려졌다는 게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었어.

그 뒤에 할머니에게 거둬지긴 했지만 여전히 낯선 곳에 적응하고 있는 네가 되게 안쓰럽게 느껴졌었어.

하지만 너의 머리에 싹이 났을 때는 정말 축하해주고 싶었어!

오랜 고생 끝에 좋은 결과가 나는 거니까.ㅎ

그리고 더 필 그 씨앗을 위해 네가 노력한 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원래 무언가 하나를 위해 무언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든거니까.

나는 정말 네가 대견하다고 생각해.

나도 너처럼 언젠가 나의 쓸모를 찾을게! 고마워!





예쁜 꽃을 피운 버려진 화병

부평여중 3학년 박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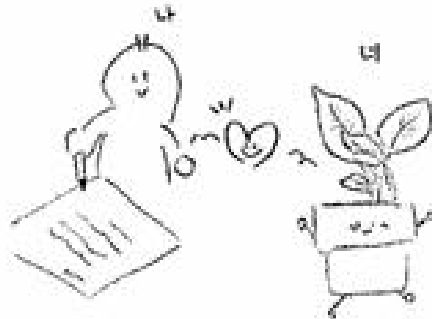
더 이상 즐거운 일이라고는 없을 줄 알았는데
나를 멋대로 동료 취급하는 화분들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잡동사니처럼 보이던 화분들은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화분들처럼 새로운 쓸모를 찾을 수 있을까요?
기대해봅니다!



내가 그린 화분 그림

부평여중 1학년 범서함

안녕 화분아! 나는 너를 그린 사람이야ㅎㅎ
식물은 괜찮은데 화분은 좀 부족하게 그려줘서 미안ㅜㅜ
내 그림 실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좀 미안하네!
내가 그림 그리기도 좋아하고, 식물 키우는 것도 좋아하는데!
우리 운명인가봐. 내가 너를 위해 특별히 표정도 넣어줬어.
표정이 있어서 그런지 더 귀여운 것 같아!
내가 무슨 식물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제부터라도
가져보도록 할게!
화분에 있는 그 4개의 식물도 나는 진짜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해.
너는 정말 멋지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식물이야 완전 완벽해!
너도 너가 자랑스럽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좋겠다!
앞으로도 이쁘고 멋있게 쑥쑥 키길 바랄게! 안뇽





사랑하는 초록이에게

부평여중 3학년 송주은

안녕? 초록아? 나는 주은이라고 해.

조심스레 네 화분을 안고 창가에 두면서 “잘 자라줄까? 나랑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도, 설렘도 많았어.

너는 말을 하지 않아도 말보다 더 따뜻한 존재야.

네가 있어서 이 공간이 조금 더 생명이 가득하고 내 하루가 조금 더 환해졌어.

그리고 요즘은 너의 잎이 조금 더 넓어지고 너의 초록빛이 더 짙어지는 것 같아. 이런 게 진짜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일지도 모르겠어.

앞으로 너가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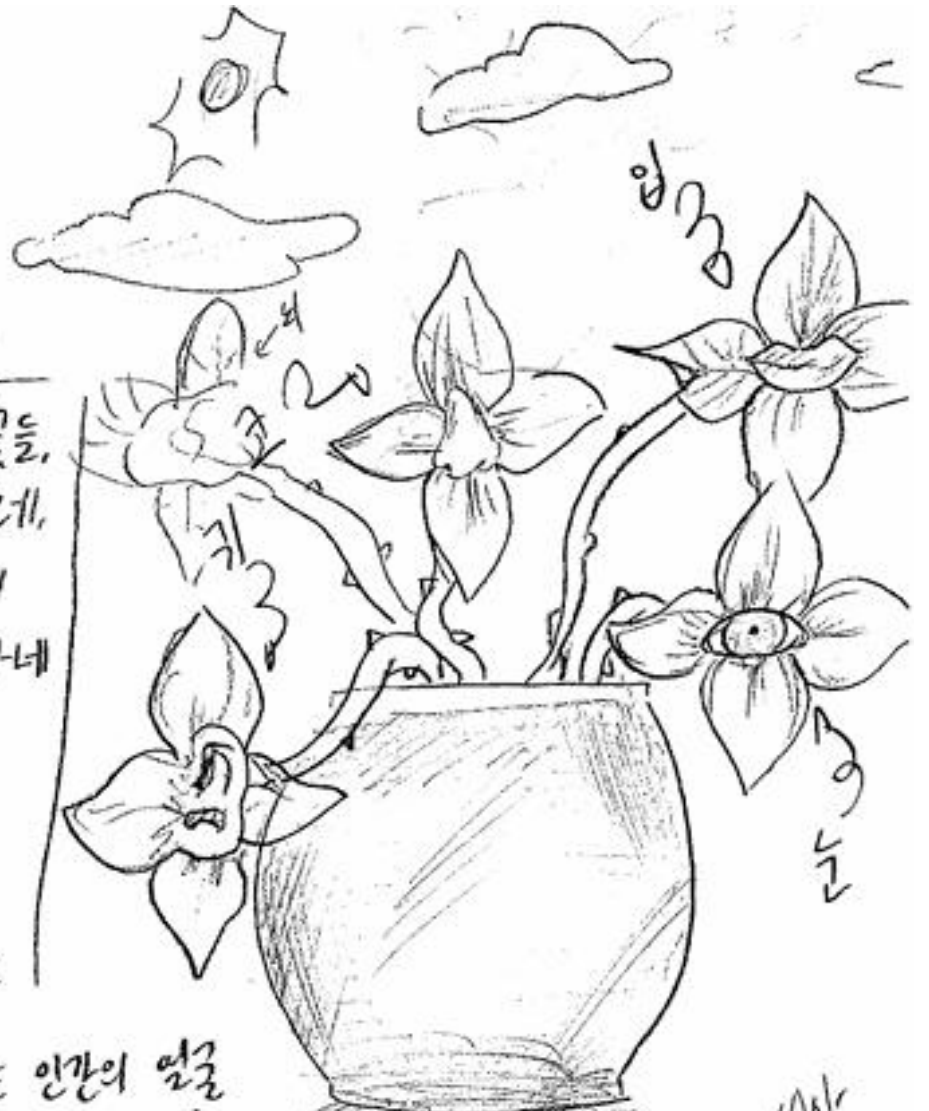
30212 여호주도

꽃

꽃한테

초라한 향아리에 핀 꽃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네,
 한 송이 꽃은 눈으로 써
 세상의 신비를 이야기하네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고풍히 피어나는 꽃들,
 밤의 정원에서
 은은한 미소를 머금네.



내 생각- 저의 꽃에는 인간의 얼굴
 조각이 있습니다. 저가 그려려고 했던
 것은 꽃이 인간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꽃은 인간처럼 어고, 자라고, 애정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저는 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달항아리에게

부평여중 1학년 오보람

달항아리야 너는 꽃병이었지만 깨져서 버림을 받았지만
새로운 주인에게 가서 기분이 어땠니?
처음엔 너가 새로운 환경에 오니깐 어색해하는 게 느껴졌어
그치만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친구도 있고 적응한 게 대단해^^
그리고 꽃병에서 화분으로 바뀐 게 어땠니?
처음엔 벌레도 꼬이고 지렁이도 기어다니고 너무 적응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새싹이 피어나기 위해서 버틴 게 신기해.
나였으면 적응하기 힘들었을 텐데 나는 네가 참 자랑스러워!



내 사랑스러운 반려식물에게

부평여중 3학년 이서현

안녕? 소중한 반려식물아?

오늘도 푸른 잎으로 나를 반겨줘서 정말 고마워.

너를 처음 만났을 때는 작고 연약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매일 아침 너에게 물을 주고 햇빛을 쏘여줄 때마다
너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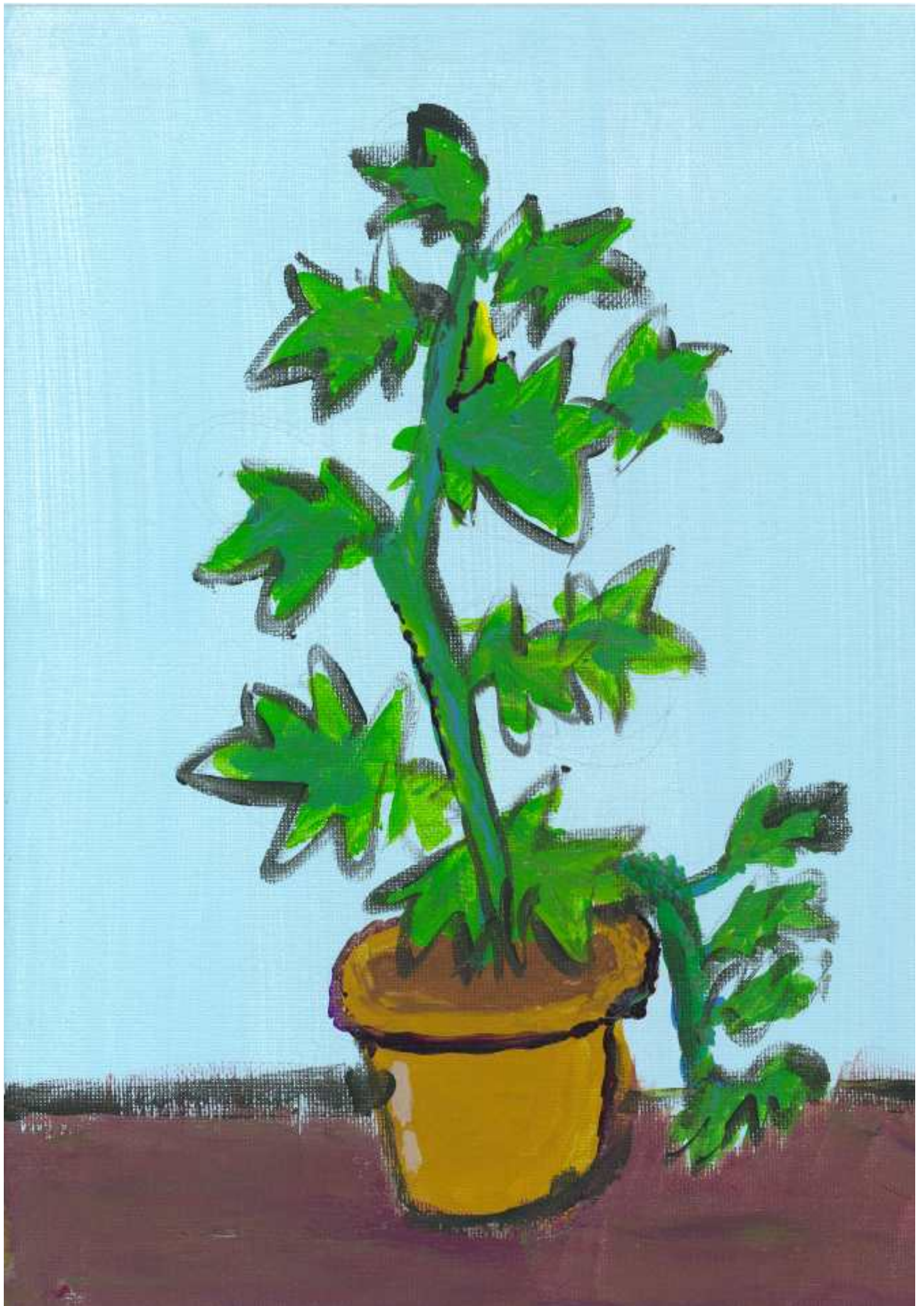
너를 돌보는 시간은 내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야.

네가 점점 자라는 모습을 보며 나도 조금씩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 같아.

앞으로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좋겠어.

늘 함께해줘서 고마워. 나의 새싹 친구야!





할머니에게

부평여중 3학년 장연우

할머니! 오늘 할머니네 놀러가서 재밌었어요. 특히 베란다에 놓여있는 화분들 구경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달항아리 화분에 열린 방울토마토도 맛있었어요. 그 화분 위쪽 귀통이가 깨져있던데, 재활용하신 거예요?

사실은... 얼마전에 제 플라스틱 필통이 망가져 버렸거든요. 아끼던 필통이기도 했고, 디자인도 예뻐서 버리기에는 아깝더라고요. 제 필통도 할머니네 화분처럼 멋진 화분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까요? 부디 제 필통이 다시 쓸모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화분으로 만들려면 물이 나가는 구멍을 뚫고 흙도 갈아줘야 되겠죠? 할머니네 다시 가서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씨앗은 뭘 심으면 좋을까요? 할머니의 분홍색 컵에 심어져 있는 다육이가 예뻐 보이던데 같은 걸 심어볼까요? 아니면 선인장? 열매?

역시 아직은 고민을 더 해봐야겠어요~ 할머니랑 상의해보고 씨앗을 정해 보려고요!

조만간 또 뵈러 갈게요 할머니~

From. 손녀



달 향아리에게

부평여중 3학년 장지수

달향아리아 너는 흠이 있다고 해서 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야
오히려 그 흠들이 너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 굳이 완벽해야 할 필요도 없
고, 너의 있는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워.





술병에게

부평여중 2학년 전민선

안녕? 술병아...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년 30개월이 지났네... 나는 그동안 너의 프랑스 이야기를 매우 흥미롭게 들었어...

그리고 그동안 나를 많이 도와준 너에게 편지를 해보려고 해...

술병아 우리가 만난 건 나의 밤이 깊던 날이었어... 솔직히 그런 나에게 너는 좀 버거운 존재였던 것 같아. 너는 어디서든 햇빛만 있다면 반짝이잖아... 어둠에 절여 있는 나와는 차원이 달랐지. 하지만 너와 지내보니 알겠더라고... 너의 밝은 마음은 모두에게 따스하게 스며들더라고. 또한 너의 따스한 마음이 나의 밤의 새벽별이 되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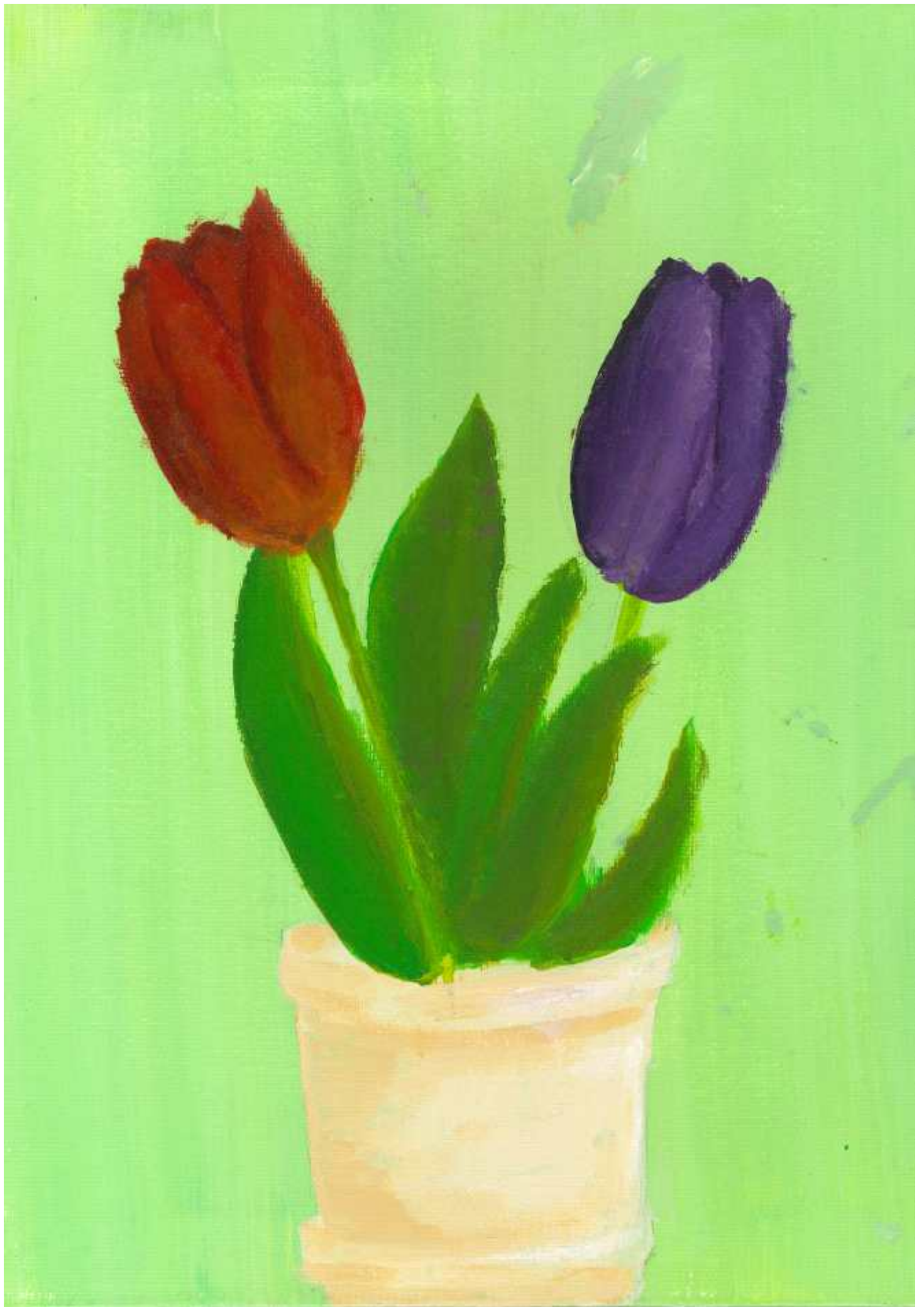
나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지. 또한 그 별이 나의 허영심을, 한 평생에 꽃을 품었던 나를 감사하게 좀... 과일이 신비로움을 느끼게 해주었어... 술병아 고마워. 나를 도와준 프랑스산 술병아, 사랑한다...

근데 술병아 너의 이야기도 나에게 영향을 미쳤어. 너의 이야기는 나에게 꿈과 자신감을 심어주었어... 네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운반되고 마셔지는 과정,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쓸모를 찾아졌을 때...

새로운 이야기였어. 정말 너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마운 것 같아.

휴... 이제 편지를 마쳐볼게 정말 고마워. 다음에도 너에게 나의 마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 사랑해.

by. 너에게 고마운 10번이



화분들에게

부평여중 2학년 정윤서

안녕? 애들아. 나 달항아리(10번)이야.

내가 처음 왔을 때 잘 적응하지 못했었는데, 그런 나에게 이야기도 걸어 주며 잘 적응하게 해준 점이 너무 고마웠는데 말하지 못해서 편지로 써.

사실 처음에 버려졌을 때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

왜냐하면 매일을 꽃들과 지내왔는데 깨져서 이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들고 왔을 때도 솔직히 별 기대도 안 했었거든.

하지만 멋진 식물과 같이 있는 너희 화분들을 보고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어색하고 낯선 환경에 있어서 말하지 못했었거든.

하지만 낯선 나에게도 친절히 말을 걸어준 너희 화분들에게 정말 고마워.

내가 짝이 났을 때 축하해주던 너희들 아직도 생각나. 너희들은 꽃병이 아니면 쓸모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던 나의 생각을 바꾸게 해준 유일한 친구들이야.

너희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고 짝이 나고 나서 목표도 생긴 것 같아.

항상 고맙게 생각할게. 안녕.

달항아리가



10번 엄마에게

부평여중 3학년 조윤주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로 인해 태어난 토마토 1번입니다.
이 편지는 어머님에게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이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처음 만난 날 기억하십니까?
새싹으로 첫 시작을 하여 점점 자라나 초록색이었던 제가 빨갭게 물들어
가고 결국 마침내 토마토가 되어 사람들에게 맛있게 먹히는 날만 기다
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새싹때부터 남들에게 절 자랑하고 다니고
저를 잘 보살피고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제가 꼭 보답할게요.
사랑합니다 어머님.

From. 엄마딸



내가 그린 화분

부평여중 1학년 최단비

안녕. 내가 그린 화분! 내가 봐도 너무 귀여워!

처음엔 단순히 유튜브 숏츠를 보며 똥굴똥굴거리다가 너를 봤어!

근데 너무 인상깊고, 예쁘고, 완전 내 취향인 화분인 너를 보며 이 아크릴 물감으로 너를 상상하며 진-짜로 예쁘게 그려봤어.

다양한 너의 모습 중 앉아있는 게 가장 귀여운 것 같아서 그려봤어. 어 때? 맘에 드니?? 너의 탈모를 막아줄 머리들은 완전 뽕뽕하고, 미역처럼 흐물흐물해 보이는 게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렸어.

원래는 두 가닥?만 그리려고 했다? 근데 너 머리카락이 많이 없으면 속상 해할까봐...

세 개 더 심어줬어. 다 달라서 더 예쁘고, 아름다운 것 같아! 너의 예쁜 개의 머리카락들도 너처럼 생명을 불어넣어줬으니까 심심하면 개네들이랑 재밌게 놀아.

그리고 너 머리에 심어져 있으니까 대화하기 불편하잖아. 그래서 너의 눈 높이를 친구인 하트도 그려줬어! 친구들이 6이나 있다니... 좋은 것 같아.

내가 너를 그릴 때 잎 하나하나 그릴 때 너무 뿌듯했어.

무언가를 탄생시켜주고 만든 것 같았거든. 그래서 더 애착이 가!

팔다리 그리고 머리까지 더 예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 많이 했어 너도 좋아했음 해.

모두의 색을 조금씩 바꿔가며 너는 이색 너는 저색 하면서 성격도 정해주고, 특징도 정해주다 보니 각자 안의 다채로운 색이 만들어진 것 같아.
이런 다채롭고 아름다운 색과 새악들로 더 멋진 세상을 보고 느끼길 바라.
된다면 더 나아가 너희들의 색깔을 꺼내서 표현하기도 바랄게!
언제나 이 그림을 응원할게. 내가 애정을 담아 그린 그림이니까. 내가 열심히 고른 색들로 완성된 그림이니까.
새하얀 구름에 앉아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 내가 그린 화분아 안녕!

From. 최단비 25.07.24 Thursday





토마토야

부평여중 3학년 최수지

토마토야 우리 달 향아리가
열심히 고통을 버티면서
널 맺었으니까,
먹음직스럽게 맺혀주렴

네가 먹음직스럽게 익어
수확해야 될 때
내가 맛있게 먹어줄게

너의 얇은 껍질이 터지고
달콤한 과육이 찢겨
안에 있던 과즙이 나와
나의 침샘을 자극해주렴

널 심어서 키운 이유는
나의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한 거란다.
그게 네 쓸모야.

이제 다 익었네?
순순히 먹히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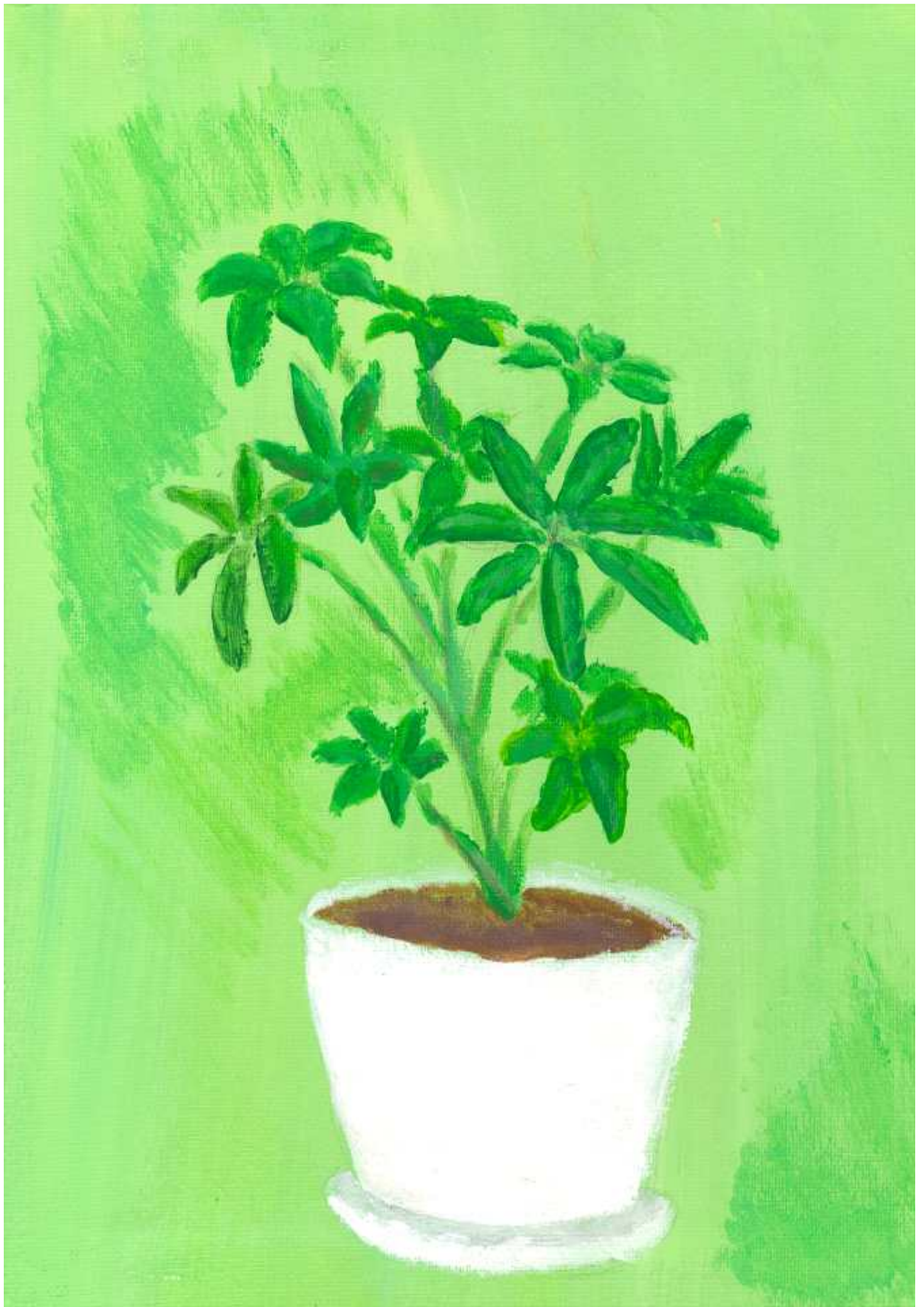




나의 쓸모

부평여중 2학년 최지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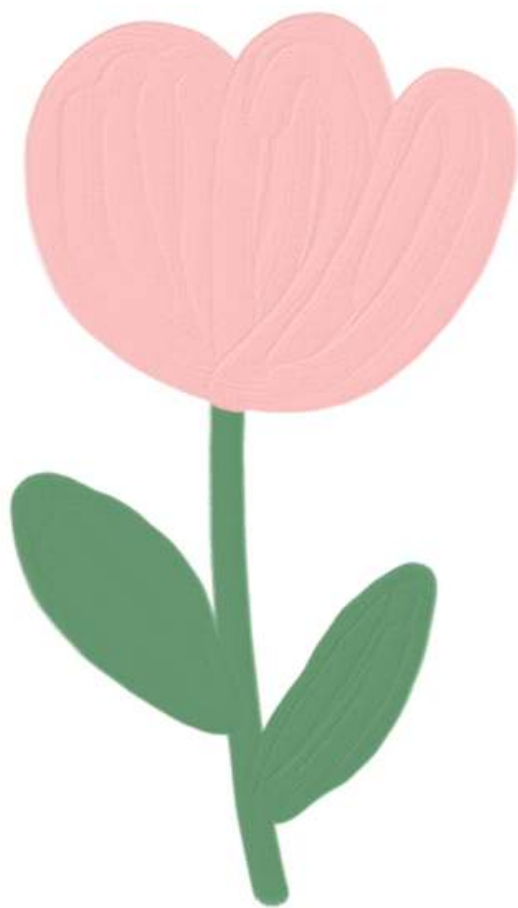
쓸모를 잃고 다시 성장통을 앓는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달빛같은 이야기
깨진 상처로 본디의 쓸모를 잃어버린 병들
쓸모의 상실이란 존재 가치의 상실
우울한 표정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깨졌음에도 새로운 쓸모를 얻게된 화병들
꽃과 함께 기쁜 표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깨져도 쓸모있음을 기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그린 화분 그림에게

부평여중 1학년 최진희

안녕 반가워 화분아. 나는 너를 그린 사람이야.
너를 그리기 전에는 캔버스는 빈 캔버스였어.
너로 인해서 누군가가 생겨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나는 너무 기뻐서.
나로 인해 세상에서 하나뿐인 작품이 나온 것이 기뻐거든.
나는 평소에 작품을 만들 때 아무 생각 하지 않으며 만들었는데
너 덕분에 큰 깨달음을 얻었어 고마워.
그럼 안녕 화분아!



쓸모 있는 여름

발행일 | 2025년 8월 18일
글·사진 | 김나현 김예서 노현지 박한별 범서함 송주은
여효주 오보람 이서현 장연우 장지수 전민선
정윤서 조윤주 최단비 최수지 최지윤 최진희
지도강사 | 이현숙
발행처 |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독서문화과)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21
전 화 : 032-363-5013
누리집 : <https://lib.ice.go.kr/shintree>
제 작 |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I S B N | 979-11-94496-31-1(45810)

- * 이 책은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의 2025년 시민저자학교 7기 새얼백일장 준비를 위한 「여름방학 글쓰기 특강」 참여 학생들과 함께 제작된 책입니다.
- * 이 책의 글과 그림,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